

## 성읍민속마을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보존방향\*

좌혜경\*\*

### 국문요약

제주적인 고유성을 지닌 다양한 전통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1984년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은 진정한 민속마을로의 복원과 무형유산의 보존이 절실하다.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소재지였던 마을로 제주지역의 전통경관 및 다양한 문화가 유지 전승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읍민속마을은 현대화되면서 많은 전통의 변화와 더불어 민속마을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된 게 사실이다.

민속마을로의 정체성을 찾는 일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활성화를 통해 살아있는 민속마을로의 복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성읍마을의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95호 ‘제주민요’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으며,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와 맷돌노래가 포함되고 있다.

---

\* 이 논문은 ‘2012년 제주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UNESCO 국제보호지역의 성공적 세계유산관리와 활용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또 독특한 민요 유형으로 지역성을 띤 조선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에 파견된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던 ‘창민요’가 민간에 전해지면서 불려지고, 전통적인 농업노동인 조밭밟기, 김매기, 풀베기, 타작질 등의 작업과 같이 불리던 노동요들이 전해지고 있다.

장례의식과 관련되어 불리는 의식요로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굿소리, 꽃염불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상여를 가름 밖 상두꾼들에 의해 장지(葬地)까지 메고 행상하면서 부르는 ‘행상소리’ 혹은 ‘상여소리’, 봉분에 쌓을 흙인 ‘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굿소리’, 흙을 쌓은 뒤 달굿대로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가 있다.

전통 초가가 잘 남아있는 성읍마을의 초가집 짓기인 ‘초가장’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하고, 초가를 짓는 기능이 뛰어난 장인인 목공(木工), 석공(石工), 토공(土工), 모공(茅工) 보유자들이 국가장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통주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제조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 제1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소주(燒酒)를 내리는 소줏고리를 제주어로 ‘고소리’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차조로 빚은 전통 토속주를 ‘고소리술’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전통의례로서 음력 7월 14일에 우마를 기르는 집에서는 말과 소의 증식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며 무속의례인 제석제(祭釋祭)를 지냈고, 마을 리장은 향회를 소집한 후 제관(祭官)선출, 제향비, 제청결정을 하고, ‘걸궁’을 통해 제비를 마련 한 후 열두 명의 제관이 모여서 유교식 포제를 지내기도 했다.

12절기 세시행사인 세시풍속은 성읍 마을의 민속적인 기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그간 지켜져 온 삶의 일부분이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

성읍마을의 보존정책은 민속적 전통을 복원하고 무형유산 중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요, 세계무형문화유산, 초가장, 진정성

## I. 머리말

현대에 오면서 제주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섬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유·무형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현존하는 민속이나 구비전승 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집 간행 등으로 제주문화에 대한 연구가 밀받침이 되었고 문화재 지정과 전승보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었다.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소재지였던 마을로서 제주지역의 전통경관 및 다양한 문화가 전승 보존되고 있다.

전통읍성으로서, 민속관광자원으로 성읍민속마을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과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개관 등 전승보존을 위한 문화재청 및 도 정책들이 있으나 실재 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제주적인 고유성을 지닌 다양한 제주 전통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을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민의 삶과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전통마을이라고 알려진 성읍민속마을이 1984년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이후, 도민들이 지냈던 제주의 전통마을을 대표하는 성읍 마을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평가와 그간의 보존노력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민속마을의 환경조성과 무형유산 보전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그 지속가능한 발전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성읍 민속마을의 현재 총면적은 790,747평방미터(239200평), 성곽내 면적은 103,510평방미터(31311평)에 이르고 있다. 민속마을 공간구성은 동헌, 객사, 남문권역으로 구성되며 성곽의 규모는 둘레 1,108m의 네모꼴 형으로 성문은 남문, 동문, 서문 3개소가 위치해있다.

650년 전 거천리 마을이 시작되어, 소진리, 영전리, 화원리, 진사리 5개 부락이 형성되었다가 진사리로 통합되고, 1423년(세종) 정의현 현청 소재지로 승격 후 성읍리로 바꿨다. 약 500년 동안 정의현의 도읍지로서 정의현을 지켰던 성곽은 총 둘레가 2986척, 높이 13척 규모로 완공되기도 했다. 이후 1609년에는 정의현의 좌면에 소속되고 1702년(숙종 28)년에는 민가 1436호, 전답 140결, 성수비군 664명, 말 1178필 등을 보유할 만큼 마을은 꽤나 번성했다. 1826년(순조 26년) 군으로 승격 후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아래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는 표선면에 편입되었다.

성읍민속 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면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도 긴밀하게 부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sup>

제주의 민속마을로서 전통 문화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으며 제주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초가, 제주향교, 돌하르방, 정의현 관아 및 정의현성 중 동헌, 객사, 남문, 서문 및 성곽 등은 건축적,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들로 마을 원형보존과 역사 문화적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은 해안마을 표선리에서 9킬로 정도 올라 간 곳, 해발 125미터에 위치해 있고 백약이, 본지, 갑서니, 설오름과 남산봉 등 곡선미를 뽐내는 오름들이 마을 주변을 빙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병풍처럼

---

1)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 자료

둘러쳐있으며 동쪽으로는 천미천이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북쪽에는 영주산이 있어 남사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해발 고도 120m의 평탄한 분지에 위치하고 주민 인구수<sup>2)</sup>는 총 1301(남 668명, 여 633), 세대구 514세대, 가구 247가구(성곽내부 81가구, 성곽외부 166가구)이며, 경제적으로는 감귤, 당근, 감자, 콩 등의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밭농사가 중심이며 아직도 제주의 전통적 중산간 지대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이용, 해양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대자연의 향연은 물론 민속문화와 더불어 경관적 가치도 잘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성읍 민속마을에는 중산간 지대의 농업 문화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 관변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무형유산의 대표격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가 있으며, 농업노동요(들노래), 장례의식요, 제주 전통 초가를 짓는 초가장(草家匠)과 관련 민요, 오메기술, 고소리술과 같은 전통음식과 관련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이 있고 그 외에도 민속마을의 마을제, 민간신앙, 세시풍속, 의식주 생활문화가 있다.

그런데 성읍마을은 관광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원형의 변형이 심각했으며, 보존에 대한 자성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무형 유산의 보전과 진흥 및 공동체 의식 복원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활성화를 통해 살아있는 민속마을 복원 정책이 시급하고 이러한 자산적 가치인정과 함께 전

2) 2010년 8월 31일 조사 통계

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서의 자리매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II. 성읍 마을 무형문화유산의 현황

마을에 산재해있는 유·무형의 역사, 문화, 민속적 가치를 지닌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경관적, 건축미학적 가치를 지닌 자원적 요소(인문자원), 지형적, 지질적, 식생적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교육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원적 요소를 마을자원으로 들 수 있다.<sup>3)</sup> 그 중에서도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무형유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읍마을 소재 지정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1) 성읍마을 무형문화유산 현황

구 분	종목	유형 및 내용	전수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제95호)	오돌또기	강문희
		산천초목	
		봉지가	
		맷돌노래(맷돌치는 소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오메기술 (무형3호)	오메기술 제조기능	김을정
	고소리술 (무형11호)	고소리술 제조기능	김을정
	초가장 (무형17호)	목공	현남인
		석공	강창석
		토공	김권업
		모공	강임용

3) 정광중, 2010,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화 분석 방향」, 제주학연구자모임, 『제주학과의 만남』, 아트21, p. 144.

비지정 무형유산	성읍창민요	계화타령	현순옥
		절군악	강문희
		중타령	이창순
		용천검	송인선
		동풍가	이미생
	성읍들노래	밧질리는 소리 (밧밧는 노래)	지역주민
		흥애기 (김매는 노래)	지역주민
		출비는 소리 (꿀베는 노래)	지역주민
		도깨질 소리 (타작 소리)	지역주민
		방애쨍는 소리(방아 소리)	지역주민
	장례의식요	행상소리 (느린 염불소리)	송순원
		행상소리 (자진 염불소리)	송순원
		진토긋소리	송순원
		달구소리	송순원
	집짓는소리	원달구 소리	송순원
		흙이기는 소리	송순원
		흙질 소리	송순원
	유교식 포제	정월, 정(丁)일 또는 해(亥)일	지역주민
	정소암화전놀이	정소암에서 봄날의 축제	지역주민
	정의골민속축제	10월 탐라문화제 기간에 치러지는 마을 축제 행사	지역주민
	무속신앙	큰굿, 마을 안할망 당제 등	지역주민
	질궁	정초, 공공기금 마련, 마을의 안녕기원	
	짚공예	짚풀, 죽공예	지역주민
	세시풍속	12절기의 행사	지역주민
	의식주	돛통시	지역주민
		갈옷, 수의 등	
		빙떡(정기), 범벅, 상외떡, 돌래떡, 모물 죽, 모물만다, 돼지고기, 오미자차	

## 1. 성읍민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가 성읍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보존 전승되고 있다. 종목으로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붕지가’, ‘마래무는소리’가 포함되고 있다. 성읍 창민요는 원래 조선 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으므로 관기들에 의해 전해 지던 노래가 민간에 전해지면서 전파되고 있다. 전승 상황과 그 계

보는 '강필용-변여옥-조을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널리 불려졌다.

성읍 들노래는 보유자 중심의 전수라기보다는 송순원, 현순옥과 같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노동과 함께 불려지고 일 년에 한 번 씩 정의고을 민속축제에서 시연되고 있다. 또한 탐라문화제, 전국민속경연대회 한국민속예술축제(2002년)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소개되었다. 현재 지역민들에 의해 '정의고을 소리패'를 결성하여 보존과 전승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성읍 창민요 및 노동요 전승 뿐 만아니라 제주 민요를 전승 보존하고 콘텐츠화하는 기획들을 하고 있다.

## 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제주민요의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첫 지정은 1989년 12월 1일에 인정되었는데 당시 보유자로는 故 조을선, 전수교육 조교로 故 이선옥이었다.

보유자 고 조을선은 전수를 하면서도 특히 자신의 손주인 강문희에게 전수하였고 강문희는 현재 보유자의 타계(2000년)로 전승의 중심에 있다.

종목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오돌또기

오돌또기는 보통 놀 때 부르던 유희요다. 장구나 허벅을 반주 악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조 때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불리던 노래가 제주 섬에 남아 제주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산천초목

산천초목은 만물이 피어오르는 봄 경치 속에서 남녀 사랑의 사설로 되어있다. 경기 및 서도의 입창 중에서 <놀랑>이나 <화초 사거리>의 첫머리 사설과 같고 신재효 본 판소리 <가루지기타령>이나 <흥부가>의 사당패가 부르는 잡가의 사설과 도 비슷하다.

## 3) 봉지가

봉지가는 주로 표선면 성읍리에서 불려지던 창민요로 남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봄이 되면 맺는 꽃봉오리가 '떨어진다' 혹은 '맺힌다'는 표현을 써서 자연의 순리를 통해 인간의 삶을 노래가사로 표현했다.

봉지가의 맛은 한 폭의 섬세한 한국화를 보는 듯하다. 사설과 연관된 연정을 노래한 대담한 표현들도 보인다.

## 4) ㄴ레ㄴ는소리 (맺돌노래)

보리나 조 등의 곡물을 뺏기 위하여 맺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제분노동요이다. 보통은 '정ㄴ레'라고 하는 맺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사설은 제주 여성들의 삶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가창 형식은 독창으로만 하는 경우와 선창자가 부른 사설을 후창자가 같거나 비슷하게 불러나가거나, 후렴만을 하는 선후창, 같은 주제를 향해서 대응 형식으로 다른 사설을 노래를 하면서도 서로 호응되는 경우인 교창 형식이 있다.

## 나. 창민요

성읍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창민요들도 송순원, 이미생, 송인선, 조일수, 현순옥, 이창순 등의 마을 소리꾼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밭 노동으로 지친 하루 일과를 노래패를 구성하여 여흥을 달래곤 했다.

#### 1) 계화타령

사당패나 잡가 소리꾼에 의해 전해지는 노래다. '김계화'라고 하는 기생이 놀음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환계타령'이라고도 한다.

#### 2) 질군악

원님이 기생들과 함께 길 행차시에 불렀던 행군악 또는 노요곡(露謠曲)이다. 잡가(雜歌)나 가사(歌辭)로 불리던 노래가 민요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3) 신목사타령

신목사 타령은 '관덕정 앞'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을 때 '기생점고' 하는 기녀들의 모습을 노래한다. 기생들의 걸음걸이를 해학적으로 묘사하며 내용은 사랑이나 여흥이다. 선율은 경기 민요 '사철가'와 유사하여 육지부에서 수입된 노래로 볼 수 있다.

#### 4) 사랑가

남녀 간의 사랑 놀음을 노래한 것을 일반적으로 '사랑가'라고 하고 있고 판소리 춘향가 중의 '사랑가'는 너무도 유명하다. 성읍의 사랑가도 비슷한 내용이고 곡이 빠른 '자진사랑가' 계열이다.

#### 5) 용천검

‘용천검’은 중국의 유명한 검으로 노래 첫머리의 “찾던 칼을 쭉 빼고 보니 난데없는 용천의 검이라”라고 한 데서 노래의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창민요와 넘나들이 많고 연정, 고독, 이별 등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룬다.

## 6) 동풍가

‘동풍’이라는 것은 자연의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남녀 간에 이는 사랑의 정서인 ‘바람’을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유희요적 성격을 띠고 남녀 간의 연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다. 들노래

성읍지역의 전통적인 농업노동요는 농사기능에 의해 밭밟기, 김매기, 쪼베기, 타작질 등의 작업에서 부르던 노래들이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성읍민요를 전수하고 공연들을 펼치고 있다.

### 1) 밭밟는노래 (밧블리는 소리)

쪼씨를 뿌리고 난 후 화산회토의 땅에 씨앗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른다.

원시 민요에서 볼 수 있는 점으로 동물과 인간 서로간의 교감을 통해 노래한다.

### 2) 김매는노래 (검질매는 흥애기)

김매는 노래를 ‘흥애기’라고 하고 있다. 여름 띄약벌 아래에서 김을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로 여성들이 하지만 남성들도

같이 한다.

### 3) 꿀베는노래 (출비는 소리)

성읍리는 중산간 지역이어서 마소에게 먹일 꿀을 베면서 부르는 꿀베는 노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장낫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특수한 곡에 따른 명칭을 창자들은 ‘홍애기’로 인식하고 있다.

### 4) 타작소리

콩이나 팥 등의 수확한 곡식을 밭 구석이나 마당에 거두어다가 ‘도깨’를 이용하여 타작할 때 부르는 노래다. 도구의 명칭을 따서 ‘도깨질 소리’라고도 한다. 두 박자의 고정된 박과 경쾌한 리듬으로 구성된다.

### 5) 방아노래 (방에 찢는 소리)

나무로 만든 나무 방아에다 곡식을 넣고 찢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절구 공이인 ‘방엿귀’를 가지고 두, 세사람 혹은 다섯 사람 까지 노래로 박자를 맞추면서 곡식을 찢어 나간다.

## 라. 장례의식요

장례와 관련하여 부르는 의식요는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굿소리, 꽃염불 소리가 있다. 상여를 가름 밖에서 상두꾼들에 의해 장지(葬地)까지 메고 행상하면서 부르는 소리를 ‘행상소리’ 혹은 ‘상여소리’라고 하며, 봉분에 쌀을 흙인 ‘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굿소리’, 흙을 쌓은 후 달굿대로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가 있다.

성읍 지역에서는 행상 나가는 날, 마을 안에서는 ‘늦은염불소리’를 하고 마을 밖에서는 ‘자진염불소리’를 부른다.

#### 1) 상여소리 (늦은염불소리)

장례 의례시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상여소리’ ‘행상소리’를 마을 안에서 부르는 소리를 ‘염불소리’라고 한다. 특히 ‘늦은염불소리’는 마을 안에서 여유 있게 늘려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역 출신 송순원씨가 잘한다.

#### 2) 상여소리 (자진염불소리)

자진염불소리는 마을을 벗어나면 부르기 시작하여 장지까지 부르면서 간다. 성읍의 상여 행상소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고, “어행허어야 어허이요로 나형허어야 머리로다”와 같은 창민요 계열의 후렴이 흥겹게 불려진다.

#### 3) 진토굿소리

‘진토굿소리’는 먹서리에 흙을 담아 ‘산테’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봉분을 만드는 장소로 옮기는 상두꾼들에 의해 불리는데, 여기서는 ‘더럽소리’ 계열의 ‘따비질소리’를 차용하여 불렀다. 과거에는 진토를 파는 일을 쌍따비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주로 삽을 이용한다.

땅 파는 일꾼들의 힘을 돋우기 위한 ‘술기소리’ 계열로 일반적인 장례의식요는 인생무상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한다.

#### 4) 달구소리

봉분을 쌓으면서도 달구 소리를 하는 데 이를 ‘음택 달구질소리’라 한다. 이때는 긴 막대인 달구대를 가지고 땅을 다진다.

## 2. 초가장

제주초가가 가장 잘 남아있는 성읍마을의 초가집 짓기인 초가장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제19호로 지정, 초가를 짓는 기능이 뛰어난 장인인 목공(木工), 석공(石工), 토공(土工), 모공(茅工) 보유자를 포함한 '성읍민속마을 보존회'가 전승 보존을 맡고 있다.

제주도의 민가는 기후, 가족제도, 신앙과 풍속 등이 달라 가옥구조와 배치형식 등에서 육지부와 달리 안거리, 목거리, 밖거리 등이 분할식으로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초가집 짓는 과정은 정초하기- 기둥박기- 지붕틀- 지붕잇기- 외벽, 천장, 내벽쌓기- 마루넣기- 구들넣기로 진행된다.

달구로 정초를 한 후 가장 가운데는 '생깃기둥', '포짓기둥', '두리목기둥'을 박는다. 포짓기둥 위에 대들포를 걸치고 포짓의 1/4과 3/4 지점에 동자를 세우고 종포를 걸쳐낸다.

대들포와 외부새에 곱은 나무 지들포를 걸치는데 종포 중앙에 대공을 세우고 이 위에 상 모루를 수평으로 걸친다. 이 위에 기둥, 도리, 보를 맞춘다.

대나무나 장작을 팔모로 깎아서 서리와 직각방향으로 걸치는 것을 '서실목'이라한다. 추녀를 건 다음 서리를 네 귀퉁이에 걸고 서리 끝에 평고대를 박아 서실을 건다. 외벽, 천정, 내벽쌓기에서는 흙이 필요한 데 주로 마당의 흙을 이용하였다.<sup>4)</sup>

성읍마을에서 초가를 지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업을 도왔다. 보통 가옥은 안거리 삼칸, 밖거리 두칸 집을 지었으며 목거리는 외양간 등으로 사용했다. 삼칸은 현재 20평정도 집 크기가 된

---

4) 줄고,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문화예술재단, p.302.

다.

초가집은 주로 봄이나 가을에 지었다. 주로 집터 다질 때, 흙 이길 때, 흙을 바를 때 노동요를 부르면서 흙을 돋우며 신명나게 일했다.

#### 1) 집터다지기와 원달구소리

‘원달구소리’는 정초하기 과정에서 불리는 민요다. 집 굽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큰 돌을 줄로 묶어 달구를 제작한 후 네 사람이 힘을 모아 달구질 소리에 맞춰서 땅을 다져 나간다. 1981년까지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지었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달구질 소리를 하고 땅을 다져나갔다.<sup>5)</sup>

일반적으로 달구질 소리는 ‘달구’라는 도구로 집터를 다지기 위해서 부르거나 혹은 사람이 죽어 봉분을 쌓을 때 흙을 다지면서도 부른다. 곧 이승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와 저승의 집을 짓는다는 두 가지 공통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것은 노동요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토신을 위로하는 주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 2) 흙이기기과 흙이기는 소리

마당의 흙을 파서 보리 켄이나 벳켄 혹은 메밀켄 등의 ‘수세미’를 넣은 후 섞어서 소와 사람이 함께 흙굿을 밟은 후 뒤집고 다시 밟게 된다. 30여명의 여성들은 ‘허벅’으로 물을 길어오고 소 다섯 마리를 이용하여 흙굿을 밟는다.

흙은 1미터 정도 깊이로 파고 들어가며 수세미와 물을 넣고 밟는

---

5) 표선면 성읍리 거주하는 송순원 씨의 증언

이 판을 ‘흙굿’이라고 한다. 안채와 바깥채 두거리가 있는 큰집을 지을 때는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빌어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 부조 혹은 노동력 부조를 했다.

흙 분량은 자기가 지을 집 굽만큼의 양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보통 3칸 집에는 100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지붕 천정에 쌓을 물기가 있는 흙을 ‘서실’위로 올린 후 뒤에 흙을 치는데 이를 ‘고대흙’이라고 하고 아래로 흙이 내리게 한 후 짧은 억새(각단)로 덮고 띠로 지붕을 잇는다.

노동은 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뺏 불리는 소리’와 비슷하나 약간 곡이 느린 편이다. 소를 이끄는 앞에 선 사람과 뒤를 따르면서 밟는 사람들이 선소리와 후림을 주고받으며 교창 형식으로 부른다. 이 민요를 ‘흙굿밟는 소리’, ‘흙끼는 소리’라고 했다.

### 3) 흙바르기와 흙질소리

초가집을 짓고 외벽을 쌓을 때는 흙을 사용했다. 마당에서 직접 흙을 파서 보리 켄이나 나록 켄 혹은 메밀 켄 등의 ‘수세미’를 넣고 소를 이용하여 흙 굽을 밟으며 수세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이긴다.

장축을 쌓거나 황토를 이용하여 쌓을 때는 집 벽에 반축을 쌓은 후 ‘뿔기’를 반 정도 엮어서 산태를 이용하여 흙을 날라다 바른다. 외벽은 160, 외도리에서 30센티 정도 낮은 높이로, 벽체의 두께는 46센티, 위는 20센티, 위로 갈수록 얇게 쌓는다.

흙질은 남녀가 어우러져 작업하고 5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 일을 도와주고 20여 명의 여성들은 허벅을 이용하여 물을 길어다 물부조를 한다. 점심을 먹은 후부터는 흙 바르는 일에 들어가게

되고 벽에 붙이는 ‘튀기’를 잡아서 고정하는 일 혹은 흙을 삽으로 떠올리는 일 등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흙질소리’인데, ‘새벽질소리’, ‘흙바르는소리’라고도 한다.

선창자는 일은 하지 않고 노래로서 노동의 신명만을 돋운다. 노래는 힘든 노동현장을 일판이 아닌 유희 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작업은 주로 동네 장정들과 젊은 여성들이 했고, 노래의 내용은 집을 지어서 평안을 기원하고 자식과 부모 가족들 간의 화목을 염원한다.

### 3. 제주 술

과거 전통주로서 제주 술의 역사를 보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 풍속 조에는 혼인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며, 납채(納采)를 하는 자도 그렇다. 혼인날 저녁에 사위가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부의 부모에게 뵙고 취한 뒤에야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풍속에 소주를 많이 쓴다(俗多用燒酒)”고 하고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봄과 가을에 광양당과 차귀당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又於春秋 男女群聚 廣壤堂 遮歸堂 具酒肉祭神)”고 기록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제주에서는 혼인과 같은 경사일이나 무속 당제와 같은 의례에서 소주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20)에 지방토호들은 매우 적기에 벼를 육지에서 거래해서 사다가 먹지만 힘이 모자란 일반 백성들은 잡곡만 먹는다. 그래서 “청주(淸酒)가 극히 귀하여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소주(燒酒)를 사용한다.(而稻絕少土豪質陸地而

食 力不足者 食田穀 所以清酒絶貴 冬夏 勿論用燒酒)”고 하고 있으며, 김상헌(金尙憲)의 『남槎錄(南槎錄)』(1601)에는 벼가 아주 적기(稻絶少) 때문에 “청주가 매우 귀하다(是以清酒絶貴也)”라고 기록하고 있다.<sup>6)</sup>

곧 제주민은 대부분이 발농사를 주로 하므로 발곡식을 먹으며 쌀로 빚은 청주는 거의 없고 곡식으로 빚은 소주를 주로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소주(燒酒)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백호(白湖)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1578)에서는 “유하주(流霞酒) 잔에 따라 권하는구나(勸之流霞盃)”라고 하여 ‘유하주’(流霞酒)와 ‘추로주’(秋露酒)가 나오며,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1653)에서는 “오갈피우슬고주를 마신다(五加皮牛膝高酒)<sup>7)</sup>”라고 하여 약용주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1899-1901)에서는 “설날에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친다는 도소주(屠蘇酒)”가 나타난다.<sup>8)</sup>

따라서 제주에서는 논이 매우 적으므로 쌀로 술을 빚을 수는 없었고, 좁쌀로 탁주, 청주 등을 빚어 토속주로 먹기는 했으나 탁주나 청주는 기후관계상 아무 때나 빚기 어렵고 장기보관이 어려워서 소주로 고아서 많이 마셨던 것이다.

## 가. 오메기술<sup>9)</sup>

성읍마을 오메기 술 제조기능은 199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

6) 金尙憲(홍기표 역), 2008, 『南槎錄(上)』, 제주문화원, p.106. p.197.

7) 李元鎭(고창석 외 공역), 2002, 『耽羅志』, 푸른역사, p.29.

8) 金允植(김익수 역), 2010, 『속음청사(續陰晴史)』, 제주문화원, p.162, p.278.

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전통맥향』, pp.247~249.

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보유자는 김을정이다.

오메기술은 차조를 가루로 빵아 끓는 물로 반죽하여 오메기 떡을 만들어 가미술에서 찌고 건져낸 후 주걱으로 떡을 충분히 으갠다. 오메기 떡 찢 물을 넣은 후 떡 양의 1/3정도 누룩을 넣어 잘 배합하여 옹기 항아리에 담아 7일 정도 숙성시킨다.

노르스름한 기름이 뜨면 술이 잘 익은 것을 알리는데, 이때 알콜 농도는 17-18도이며 맛이 적당히 흥취 있어 좋다.

발효제로 쓰는 누룩은 보리나 밀 등의 곡물을 이용했다. 나무 방아에서 빵거나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든 후 물로 반죽하여 원판 형태로 만든다. 바구니에 짚 등으로 싸서 두면 곰팡이 미생물을 번식시킨다. 완전히 건조된 누룩을 다시 으깨어 술 등을 빚을 때 쓰는데 주로 누룩은 황국균이 발생하는 발효제 역할을 한다.

곡물은 분쇄정도에 따라 분곡과 조곡으로 나뉘며 분곡은 곡물을 빵은 가루를 사용하는데 주로 약주를 제조할 때 사용하고, 조곡은 거칠게 부순 곡물로 만드는데 탁주나 소주를 제조할 때 쓴다.

## 나. 고소리술<sup>10)</sup>

소주(燒酒)를 내리는 소줏고리를 제주어로 ‘고소리’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차조로 빚은 전통 토속주를 ‘고소리술’이라 한다. 고소리술 제조기능은 1995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되고 보유자는 현재 김을정이다.

차조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가루를 섞어서 밑술을 만든 후 23~25

---

10)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pp.249~251.

도의 저장고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다.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덧술을 버무린지 7일 후면 청주가 되는데 이를 가마솥에 넣어 열을 가한다.

가마솥 위에 얹힌 고소리 내부에서 기체가 되어 올라간 소주는 찬물 용기에 닿아 식혀진 후 주둥이 부분으로 증류식 소주가 내린다.

#### 4. 무속신앙<sup>11)</sup>

성읍마을 우마를 기르는 집에서는 음력 7월 14일에 말과 소의 증식을 위한 제사인 ‘백중코사’를 지냈다. 고사는 방목하는 마소들을 밤에 가두고 관리하는 밭인 ‘바랑밭’에서 지내며, 가가호호는 분향을 한 후 술을 부어 올리고 수저를 메(흰 쌀밥)에 꽂아서 축언을 하는데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이 후 재물을 술잔에 떠 놓고 땅에 묻는데 이를 잡식하여 ‘궤묻는다’고 하며 제의가 끝나면 일동은 모여앉아서 음복한다. 또 조와 메밀 농사에 해충 없이 풍년들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석제(祭釋祭)가 있었다. 제석제는 조 파종과 메밀 파종 이전에 택일하여 지낸다. 이제를 지내던 동산을 ‘제석동산’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성읍본향당인 ‘안할망’ ‘관청할망’에 대한 비념이 있는데 부와 관운,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

11) 현용준, 1998,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pp.162-163, p.166.

## 5. 유교식 포제

연말에 이장은 향회를 소집하고 제관(祭官)선출, 제향비, 제청결정, 리민들이 부담할 비용 등을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궁을 통해 제비를 각출하기도 한다.

정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자시에 제를 지내기 위해 열두 명의 제관은 자신들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3일 전부터 합숙을 한다.

상단제를 지내는 대상은 포신지위(酺神之位)다. 재물을 진설하고 집례(執禮)가 창하는 홀기(笏記)에 따라 행한다.

하단 신은 제수임신지위(諸首任神之位), 염질신지위(染疾神之位), 목동신지위(牧童神之位)다. 상단제의 대축(大祝)이 혼자서 분향 배례하고 일곱 번 독축을 외는데, 하인은 각종 제물을 그릇에 떠놓은 후 숟가락으로 사망에 던진다.<sup>12)</sup>

## 6. 세시풍속

전통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은 성읍 마을의 민속적인 기층을 보존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이다. 그것은 제주사람들의 세시 행사에 따라 그간에 지켜져 온 삶의 일부분이 12절기의 세시행사 중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진행을 보면 정초에 하는 걸궁과 6월 하순의 갈옷짓기, 7월 7일 ‘마불림’이라고 해서 옷과 가재 도구 등을 말리고 할망당의 신의(神衣)를 햇볕에 말려 곰팡이를 제거한다. 11월 하순에는 띠줄을 꼬아

12) 현용준, 앞의 책, pp.164-165.

13) 김영돈 외 1인, 1989,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pp.112-117.

초가지붕을 이고 청주인 ‘제주빚기’ 등을 한다. 12월 동지 후 술일(戌日)납평일에 수수, 좁쌀, 찹쌀로 엿을 고아 먹고 12월 20일 경에는 계(契)의 수익금을 가지고 설 제수를 위해 소 추렴을 한다. 이외에도 선달 그림 밤새기, 칼국수 먹기, 묵은세배 등을 했다,

### Ⅲ. 무형유산 중심의 보존 방향

성읍민속마을은 제주의 옛 고을, 산간마을, 중산간 마을의 특징을 지니면서 제주의 전통적인 의식주, 통과례, 신앙, 생업, 사회 등의 모든 생활양식이 구비되어 있고, 전통초가가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화 자산 원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도제식의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2012년 개관)은 전승보존과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수교육관은 제주민요, 고소리술, 오메기술, 성읍리 초가장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만이 아니라 대내외 홍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공연, 전시, 교육 등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 곳은 제주민의 정신과 삶의 숨결을 후세들에게 교육하고, 대내외로 홍보하는 무형유산의 전당으로써 전통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진정성을 담은 성읍 민속마을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주민요는 지역의 특성과 가창능력이 뛰어난 지역주민 유무에 따라 마을 단위별 소리관 재구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전통을 살린 연희관, 소리관의 형성은 마을 민속연희와 공유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다.

성읍리 무형문화유산인 성읍창민요, 오메기·고소리술, 세시풍속, 포제, 민속마을 사람들의 남긴 무형의 전통적 자산 등에 대한 기초 자료의 DB화와 함께 살아있는 마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료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성읍민속마을 토박이 생애 조사를 통한 『성읍민속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발간과 오래된 사진 및 물건, 전승자료 발굴 및 인터뷰, 동영상 자료 등의 기록화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읍민속마을의 과거 생활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민요 배우기, 오메기·고소리 술 빚기, 옷(갈옷) 만들기, 전통혼례 등 축제나 상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보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화된 참여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관건이고 또한 마을의 역사 문화적 자원이 관광 소재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어

성읍 민속마을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활성화를 통해 살아 있는

민속마을로의 복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성읍마을의 보존정책은 민속적 전통을 복원하고 무형유산 중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은 많은 민속과 전통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도민이나 행정 당국은 전통성과 고유성, 진정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제주민의 원형 자산이 후세대에 물려줄 자원임을 깨달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문화유산으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이 2010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볼 때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관리 시스템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시급하게 전승보존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 및 진흥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읍민속마을 보존회' 활성화, '성읍민속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역사마을'로 지정된 경주시 양동마을, 안동시 하회마을 등과의 교류도 필요하다.

진정성 있는 민속마을로서의 새로운 도약은 성읍민속마을의 전통을 발견하여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 또 도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지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 김정(金淨), 1520,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 김상헌(金尙憲), 1601, 『남사록(南槎錄)』.
- 이원진(李元鎭), 1653, 『탐라지(耽羅志)』.
- 김윤식(金允植), 1899-1901, 『속음청사(續陰晴史)』.
- 경주시, 2010, 『세계문화유산경주양동마을』.
- 김영돈 외 1인, 1989.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2016』.
- 제18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팸플릿, 2011,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 제주특별자치도,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전통맥향』, 도서출판 제주문화.
-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2012,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정광중, 2010,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화 분석 방향」, 『제주학과의 만남』, 아트21.
- 현용준, 1998,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자료

Abstract

## Tradition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Seong-eup Folk Village in Jeju.

Choa, Hye-kyung\*

As part of the efforts to recover the identity of the Jeju residents, an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and specific system to protec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along with preserving the Jeju Island's traditional culture is desperately needed.

Such being the case, there is a dire need to protec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o restore the traditions of the Seong-eup traditional villag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no. 188 as important ethnic data in 1984. This is the one and only authentic and quintessential place where various Jeju cultures can still be s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Seong-eup Folk Village in Jeju is more than feasible as it had been the very village where it was the main governing prefecture called Jeong-eui-hyeon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over 500 years. As such, various Jeju culture and traditional scenes have been perfectly preserved and maintained until now and has an excellent universal value for all mankind.

The foundation basis to maintain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such as the straw house artisan, traditional food, and Jeju folk songs should especially be made secure while a designation system to appoint each ethnic villages' master artisan according to skills and crafts, traditional village festivals, folk

---

\* Jeju Development Institute Jeju Studies Researcher Center

beliefs, lifestyle related to seasonal customs should be made as well. Only when this happens ca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the Jeju people with appropriate indigenous characteristics be hand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and will lead to the worldwid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Seong-eup Village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to appreciate.

If we were to look for the true value of the Seong-eup Folk Village from the 10 universal value standards decreed by UNESCO, it qualifies under 4 standards. \*\*

First, the subject in question has to be a cultural tradition that is in existence already or if it has disappeared, it has to be peerless or unique in its qualities at the least. In relation to that, the Seong-eup Village is in possession of Jeju's unique lifestyle and abundant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Especially of note is the Jeju traditional straw thatched houses, Jeju folk songs, Omegi wine, Gosori liquor, Natural monuments, the old castle ruins, Dolharubang (stone grandfather statues), folk beliefs, folk materials and numerous other intangible cultural assets to list just a few.

Secondly, there are exceptional cases of construction forms which give evidence to important stages in human history which are both architectural and technical along with breathtaking sceneries.

As for cultural assets related to the list mentioned above, there are the nationally designated folklore data of the Seong-eup Village itself along with 5 traditional houses of Jo Ilhoon, Ko Pyeong-oh, Lee Youngsook, Han Bongil and Ko Sangeun. In addition, there are the Jeju Province designated tangible assets such as the no. 5 Jeongeuihyanggyo, no. 7 Ilgwanheon, and the 12 Dolharubang (stone grandfather statues). All these have been preserved in pristine conditions.

---

\*\* Data from the Standard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ttp://www.unesco.or.kr>)

Other than the items that are mentioned above, the main building, the guesthouse, South Gate, West Gate and the fortress area of the whole area of Jeongeulhyeon Administration Square has been restored to its former glory. All in all, it is well-maintain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tatus of the village in its original form.

Thirdly, they are the representative cases where environments are threatened when a fixed traditional ground representing the culture or in how the land or ocean are used through interchanges with the human environment which has become irreversible.

The Seong-eup Folk Village is located within the mid-mountainous region while the Oreums (parasitic volcanos) surround the village in all sides while the Cheonmicheon River flows out to the ocean. As it can be seen, nature's scenic panorama are fused well with its cultural assets maintaining its value to its optimum.

The total number of residents here is 1301 (668 men, 633 women) encompassing 514 households, 247 families (81 families within the castle grounds, 166 families outside the castle grounds). Economically, most of them make their livelihoods by cultivating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tangerines, carrots, potatoes and beans thus maintaining the lives of the Jeju people of old vividly.

Fourthly, it is related directly to an event or living tradition, philosophy, principles as well as art or literary works that have universal qualities. These qualities can be found easily in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 Preserving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t is imperative that we come up with policies to restore the living folk practices which are still in existence today through the preservation of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order for this to happen,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village with a living transmission of cultural asset should be an utmost priority.

The nationally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5 the 'Jeju Folk Songs' have been preserved and transmitted mostly by the Seong-eup Village as the primary responsible entity. The songs include Odolttogi, Sancheonchomok, Bongjiga, and the Songs of the Millstone. The Seong-eup Chang folk songs were originally created within Jeongeulhyeon for 500 years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nd it was natural that these songs were passed out from the gisengs to the general public.

The traditional labor songs of the Seong-eup region were songs that were sung inspired by agricultural functions such as stepping on the millet fields, weeding, cutting grass for feed, and threshing. The people sang these songs while working to alleviate their hardships.

In relation to the songs that were sung with funerals include the Haengsang-sori, Dalgu-sori, Jintogut-sori, and the Kotyeombul-sori. The sound where the pallbearers sing out loud while carrying the coffin outside the village until the burial plot is called Haengsang-sori or Sangyeo-sori. The sound where they dig up the jinto (earth) which will pile up on the burial mound is called Jintogut-sori and there is the Dalgu-sori which is sung while patting the mound with a ramming stick. The straw-thatched house building practices are well preserved in the Seong-eup Village as evidenced by the most well preserved traditional straw thatched houses has been designated as the Jeju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9. The preservation society has been given the name 'Seong-eup Folk Village Preservation Society'. In addition, the artisans who excel in building the straw thatched houses have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divided into categories of mokgong (wood), seokgong (stone), togong (earth) and mogong (grass).

When the straw-thatched houses were built in Seong-eup Village,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from all over and helped to build the house together.

Normally, the houses would be built with three rooms for the main building with two annex buildings and a barn.

The straw thatched houses were usually built in spring or fall. When the house lot was leveled out, the earth kneaded or when the earth was plastered, the labor songs were sung out to their heart's content making the workload more fun.

The Omegi traditional wine's brewing method wa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3 on May of 1990 by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The current possessor of this skill is Kim Euljeong.

The sojugori which is a kind of distillatory apparatus is called 'Gosori' in Jeju language. The traditional wine made of glutinous millet using this instrument is called 'gosori-sul'. This skill to make the gosori-sul wa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1 by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on April of 1995 and the person who is in possession of this unique skill is Kim Euljeong.

In the past, in the houses which raised horses, on July 14th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a ceremony to wish for the increase in numbers of the horses were carried out. This ceremony was also held to pray for a plentiful harvest of millets and buckwheat where no harmful insects would come.

This was a kind of a Confucius style harbor festival where the village chief called up the people and appointed the master of ceremony, decided on the proposals as well as the amount of money needed to carry out the ceremony and consequently collected the needed funds from the village people. In order to carry out the ceremony, the 12 masters of ceremonies cleaned up themselves and it was only then that they proceeded with the execution of the ceremony.

The seasonal customs as traditional culture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preserving the ethnic subbase of the Seong-eup Village and a part of the daily practices which have been kept alive has remain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the 12 divisions of the year.

The preservation policy of the Seong-eup Village should have a priority first on restoring the ethnic traditions as well as coming up with a long term plan in effectively preserving and using these traditions so that it will ultimately lead to a basis of being designated as one of the UNESCO cultural heritages.

**Key Words: Seong-eup Folk Village, Jeju Folk songs, World Cultural Heritage, Straw House Artisan, Indigenous Characteristics.**

교신: 제주시 이호2동 1562번지  
(E-mail: choahg@jdi.re.kr)

논문 투고일 2013. 1. 31.

수정 완료일 2013. 2. 15.

게재 확정일 2013. 2. 20.